

종합·해설

문, 민주 입당 압박 주도권 잡기 안, 논쟁 피하며...거리두기 일관

문-안 단일화에 상반된 태도...속내는?

범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상반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후보는 정당후보론에 이어 민주당 입당론까지 거론하며 안 후보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안 후보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태도로 선을 그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단일화가 될 때까지 저와 안 후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정당후보론, 무소속 후보론, 각자 자신의 장점 경쟁은 너무 당연한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새로운 정치 염원이 정당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 "민주당 후보 문제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정당후보론'을 재차 강조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공동 정치혁신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안 후보 측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문제만큼은 진정성 있게 해보자는 취지"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처럼 문 후보 측이 단일화 관련 이슈에 대해 공격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단일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 후보 측은 지금은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할 때지, 문 후보가 단일화나 입당론을 놓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민은) 안 후보에게 제대로 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달라는 주문이고, 민주당에는 지난날과

현재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더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며 "지금 각자 열심히 새 정치를 위해 민생비전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후보의 입당론에 대해 "목적도 전략도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당론 프레임으로 당리당략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한 표현은 연대이거나 연합"이라며 단일화 표현도 문제삼았다.

이 같은 반응은 문 후보 측이 지지율이 정체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종의 공세적 전술을 펴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양측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날 문, 안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공동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입당 등을 지나치게 압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남선대위 맞을린 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남선대위원들과 함께 공약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다.



'일자리' 연 언 청바지와 콧바라기 차림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일자리' 문 옆에 '비상구 그림'이라고 크게 써진 출입문을 열고 있다.



직업병 피해자 만난 안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3동 노생병원을 방문, 삼성반도체에서 6년간 일하고 뇌종양 발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재활 치료 중인 한해경 씨를 만나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

대선 후보 줄이는 정책행보 표심잡기

박, 경남대서 반값등록금 해결책 모색
문, 정보통신 일자리 50만개 만들겠다
안, 기업도 이제 노동자 안전에 투자를

연말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후보 3명은 15일 각자 전략 지역 방문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며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날 경남대 인문관 앞 10·18 광장에서 가야대·창신대·문성대 등이 지역 총학생회장단 200명과 함께 '박 후보와 경남 지역 총학생회와의 빙고'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엔 취업과 대학 등록금 등 학생들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의 이날 지방 방문은 과거사 논란과 당내 전면적 인적쇄신 등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킨 뒤 이뤄진 첫 방문으로 잠시 주춤했던 민생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상공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등 일자리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이어 그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로 자리를 옮겨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ICT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정책 제시 후 민생현장을 찾는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노생병원을 방문, 삼성반도체에서 6년간 근무 후 뇌종양 수술 받은 뒤 재활 치료를 모색했다.

그는 이날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의 한해경 씨를 만나 위로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도 생산성 향상에만 투자하기 보단 이제는 노동자와 사람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기업 또한 노동자의 안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곡동 사저' 이광범 특검 "성역·금기없는 규명" "박근혜 지지" 전 민주당 의원 20명

이광범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검팀은 15일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해라코스 빌딩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논란과 우려가 많다.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직원 상견례 등 개청 행사를 마친 뒤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했다.

안동진·이윤수 전 의원 등 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15일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들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신 반대를 위해 격렬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라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윤수 전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총 20명"이라며 "금주 내로 전직 민주당 원외위원장이나 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들이 연이어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한 전직 의원들은 대부분 동교동계로 분류되지만 일부 상도동계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양혜령, 동구청장 보선 출마선언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은 15일 "지역민에 대한 애정과 지방자치 경험을 살려, 동구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바치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청장의 잔여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 예정 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경기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유치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고 국제 보건기구의 공인 안전도시 지정으로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양 전 의원은 "구청장의 정책 판단과 결정이 주민들을 행복과 고통도 안겨 드릴 수 있는 만큼 구정 하나하나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형근 "총장추제 승화 발전시켜야"

오형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올해 9회째를 맞는 광주 총장추제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추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금남로, 총장로가 꿈과 열정을 불태웠던 추억의 공간이자 미래세대의 발전소 역할을 지

조기준, 동구의회 보선 예비후보 등록

조기준 대한적십자사 서남동 봉사회장이 동구의회 나 선거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조 예비후보는 서남동 주민자치위원,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동구지역위원회 서남동 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광주 총장추제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추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한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생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획·설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친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산동중의대학침구(針灸)연수생모집

3년 필업(졸업)과정

- 교육기간: 3년
- 모집전공: 침구과
- 모집기간: 2012년 12월 20일까지
- 교과내용: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업오행, 동씨기혈 등
- 중국어자격증, 면허 취득 가능
-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해외 한의사 진출

"알기쉬운 침구학"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원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광주31기 10월 19일(금) 오후 2시

위치: 성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하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본원/대구본원/부산본원/울산본원/광주본원/제주본원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층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임)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모집, 납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땅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성, 전남전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영) 광주 서구 능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